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잇단 악재

목포시의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잇따른 악재로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당초 계획했던 등록된 개별문화재 매입과 종합정비계획 수립이 진척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무소속 손해원(64) 의원 과정까지 겹치면서 목포시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18일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부동산 실권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발표에서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사업계획을 포함한 보안자료를 취득해 토지와 건물 등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사업 진척 없고 부동산 매입 시 관계자 연루 의혹 시 "법원 판단 예의 주시...사업 영향 미쳐선 안돼"

손 의원의 부동산 매입에 목포시청 관계자가 연루된 것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손 의원이 부동산을 매입한 원도심 유달·만호동 일대는 올 해부터 5년간 500여명이 투입되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산재한 근대건축물 등 문화유산의 보존과 보수·정비 등을 통해 주거공간 개선과 관광인프라 등을 확충한다는 대단위 프로젝트다.

올 해는 45여원을 투입해 개별문화재로 등록된 14개소를 중심으로 건축자산을 매입하는 등 총 110억원

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사업지구 내 건물 매입이 올 초 손 의원 과정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한 건물주들의 개발 심리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또 건축물 사용을 위한 신탁마저 난관에 봉착하고 종합정비계획 승인마저 미뤄지고 있다.

여기에도 손 의원 본인의 부정에 도 불구하고 검찰이 부동산 매입을 투기로 규정하면서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최대위기를 맞고 있다.

목포시는 검찰의 손 의원에 대한

수사와 무관하게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반기부터는 옛 거리 경관을 복원하고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한 빈집갤러리를 오픈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종합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사업이 승인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을 설득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근대건축자산 매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지만 계획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우려되는 것은 손 의원의 과정이 사업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공원 토지 소유자, 보상가격 부당 주장

광주시가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부지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가격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 중앙공원과 종의공원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 토지 소유자 300여 명은 18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특례사업 백지화를 요구했다.

년 동안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한 것도 억울한 데 또 개인재산권을 강제로 박탈당하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공원 부지는 광주시의 소유도 민간사업자의 배를 불려주는 땅도 아니다"며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백지화하고 광주시가 공원 전체를 인수해 자연 그대로 존속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지역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대상 7곳 중 중앙공원 1.2, 종의공원 일곡공원, 신흥공원, 운암산 공원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송정공원은 광주시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오는 9월말 사업 시행자가 최종 확정되면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 보상가를 산정한 계획이다.

서울서 기자

광주 주변 담양 땅값보다 20배 적어

"광주시가 공원부지 전체 인수해야"

토지 소유자들은 "이번 사업은 건설사에게만 전문학적인 이득이 돌아가고 정작 땅 주인이던 주민은 농사지을 땅이 없어진다"며 "대신 그 자리엔 35층 평당 2000만원 짜리 초호화 아파트가 들어서고 공원부지는 그 아파트 주민만을 위한 공원으로 전락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토지 예상 보상비는 광주 주변 담양군의 땅값보다 20배나 적다"며 "공원부지로 묶여 45

== 이런판결 저런판결 ==
입양아에 봉침...이동학대 혐의 '봉침 여목사' 집행유예 선고

자신이 입양한 아이들을 어린 이집에 수년간 말린 채 방임하고 아이들의 몸에 봉침(벌침)을 놓는 등 아동학대를 일삼은 이른바 '전국 봉침 여목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형자)는 1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복지시설 대표이자 목사인 A(4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의료 면허 없이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입양아 B(7)군 등 2명의 신체에 봉침을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4년 6월 10일 오후 9시에 B군을 안고 전주시 완산구 양북 4차로 한복판에 누워 고성을 지르는 등 신체 및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스트레스를 받아 돌출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입양아 B군 등 2명을 입

순천만습지 통행관문 '교량교'...언제까지 버틸까?

위험등급다리 예산 확보에 가로막혀 재가설은 엄두도 못내



순천시는 최근 교량교 일부구간에 대한 위험을 발견하고 보수공사를 실시하였다.

순천의 대표 관광지인 순천만습지 진입구간에 위치한 교량교(다리명칭)의 교량(橋梁)상관부문에 철근부식이 확인되면서 교통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순천만길 264일원에 위치한 교량교는 총연장 165m로, 1967년 10월에 준공되어 현재까지 52년째 사용

는 교량이다.

이 다리를 이용해 도시동 주민들과 순천만습지관광객 등 연간 30만대 이상의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으며, 찾고 있는 관광객도 연간 200만여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량상관부에 콘크리트 함몰구간이 생기면서 이곳을 통해 빗물이 교량내부로 유입되어 철근

부식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최근 발견한 순천시는 지난 12일부터 일부 구간 보수공사를 우선 실시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오래된 구조물 상판이 증가된 차량들의 통행 중량을 견디지 못하고 내려앉은 것으로 보수공사를 통한 단기처방에는 분명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근마을 주민들 또한 날로 늘어나는 관광객들과 주민안전을 위해 교량 재가설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의 핵심은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이렇게 불안한 교량을 계속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 있다.

교량 재가설에 따른 비용이 200억원 가량 추산되고 있으며, 오직 국비(특별교부세 등)에만 의지해야 하는 순천시의 상황으로써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국비를 일시에 지원받는 것은 현실에 무리가 있어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도 교량교 재가설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러한 현실적인 벽을 넘지 못한 채 땀집식 처방에만 급급해온 실정이다.

교량교는 현재까지 네 번의 보수·보강 이력이 있다. 교량교는 한 때 D등급을 받은 바 있으며, 단면복구 및 균열보수를 통해 C등급으로 상향시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순천시가 최근 실시한 정밀 안전점검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으로 있어 그 결과가 따라 순천시의 행정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지켜보는 지역주민들의 답답함은 늘어만 가고 있다.

지역구 오광복 시의원은 "지역구 주민들이 통행하는 교량인 만큼 교량교의 재가설에 필요한 시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 이정현(무소속) 의원 역시도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교량교가 필요한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이 예산확보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 조속한 대책 마련에 대한 관계자들 모두의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주세계수영대회 안전 책임' 경찰 전담경비단 본격활동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안전을 책임질 경찰 전담 경비단이 18일 공식 발대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광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광주 서구 열주체육관 빙고올림픽관에서 광주세계수영대회 선수단과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질 경찰 전담

경비단 발대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민감룡 경찰청장장, 김규현 광주청장, 최관호 전남청장,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조영택 수영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등과 경찰특공대, 경찰전담부대, 교통전담부대 등으로 구성된 경비단 1000여명이 참석했다.

발대식은 전담경비단을 상징하는 깃발 전달식으로 시작했다.

민감룡 경찰청장은 광주경찰청 양성된 2부장을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전담 경찰 전담경비단장으로 공식 임명하고 부대기를 전달했다.

또 수영대회 안전을 책임지겠다

는 다짐을 하는 전담경비단의 선서가 이어졌다.

발대식에서는 경찰특공대가 인질을 붙잡고 테러 행위를 하는 테러범 진압 시범도 펼쳐졌다.

전담경비단은 다음 달 5일부터 선수촌·본부호텔·경기장 등 주요 대회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배치돼 교통관리·테러대응·경찰 서비센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회 운영을 지원한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태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체조사표, 자발치료, 영민 민력어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검진기관이 포함되어 있으나, 여기에는 검진 장소가 없습니다.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29] [고객센터 1577-1000]